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9

바순(Bassoon)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편. 바이올린
- 2편. 비올라
- 3편. 첼로
- 4편. 더블 베이스
- 5편. 하프
- 6편. 플루트
- 7편. 오보에
- 8편. 클라리넷
- 9편. 바순
- 10편. 색소폰
- 11편. 리코더
- 12편. 트럼펫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진하게 될 것이다.

바순Bassoon을 들어가며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는 달리 의외의 전공을 한 연예인이 여럿 있는데 그중 드라마 허준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연기와 배우 전광렬은 대학에서 연기가 아니라 바순을 전공하였다. 그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좋아서 단역 배우로 활동하며, 무려 10년간의 무명생활을 버텨내고 결국 최고의 연기자로 자리매김했다. 음악이든 연기가든 사람

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분야에서 진정 빛을 발하는 것 같다. 배우의 길을 허락받기 위해 그는 바순을 여러 대 부었다고 하는데 그의 열정만큼은 정말 높이 살만하다. 바순은 1억에 육박하는 비싼 악기이기도 하지만 구하기 힘든 악기 중 하나인데 독일의 유명제조사인 헤켈Heckel의 바순을 주문하면 10년 넘게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바순의 개요

이 악기는 목관 악기군에서 중저역을 담당하는 악기이다.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바순으로 부르고 독일에서는 파곳Fagott이라고 한다. 파곳이라 불리게 된 유래는 나뭇가지 다 발로 엮어 놓은 것을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바순이 비슷하게 생겨서라고 한다. 바순은 단풍나무 재질로 약 1.5m 높이에 두 개의 길쭉한 관을 나란하게 붙인 모양새로 어깨에 줄을 메고 비스듬히 세워서 연주한다. 접혀 있는 것을 펼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길이는 약 2.6m에 달한다. 이중의 더블리드(겹리드)에서 진동한 음이 긴 나무 재질의 관을 통



바순 전공의 배우 전광렬 / KBS 스타일

해 울리고 증폭되면서 정제된 아름다운 음을 발생한다. 이처럼 길이가 긴 악기이기 때문에 연주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ㄱ’자 모양으로 둥글게 구부러진 금속관인 크록^{crook}(보칼^{bocal}이라고도 부름)에 더블리드를 장착하고 테너관^{Tenor joint}에 꽂아서 연주하게 된다. 이때 크록을 꽂는 깊이에 따라서 음높이가 달라지는데 이를 이용하여 튜닝하게 된다. 바순은 C조 악기로 기보되는 음과 실제 연주음이 같으며 3옥타브 반 정도의 음폭을 갖고 있다. 기보는 주로 낮은음자리표를 사용하며 음이 높은 경우에는 테너음자리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오보에와 바순처럼 더블리드를 가진 목관악기의 음색은 대체로 코맹맹이 소리가 특색인데 바순은 뽀뽀거리는 비음이 매력적이다. 중저음에서는 어두우면서 고즈넉한 느낌을 주며 고음에서는 다소 익살스러운 소리를 내는데(이것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광대라는 별명이 붙음) 오케스트라 전체에서는 부드러운 음색과 함께 첼로나 트롬본과 같은 저역을 담당하여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18세기 이전엔 주로 저음만 담당하던 ‘통주저음’ 악기로 사용되다가 이후 모차르트의 바순협주곡 K191에서 연주 악기로서의 폭을 넓혔으며 하이든은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아 그의 작품에서 바순을 많이 사용하였다.

19세기에 바순은 프랑스의 뷔페^{Buffet}가 제작한 것과 독일의 헤켈^{Heckel}이 제작한 두 종류가 있었다. 뷔페 방식은 헤켈의 음색에 비해 화려하지 않지만 손가락의 위치와 운지는 다소 쉽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뷔페 방식의 고향인 프랑스에서도 헤켈 바순을 더 선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을 채용할 때 뷔페 방식도 연주 가능한지를 따져본다고 한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에 비하여 독주곡은 그다지 많지 않는데 아마 저음의 음역대 때문에 멜로디가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약한 경향인 것 같다. 저음과 고음을 오가는 현란한 테크닉을 보일 순 있지만 소리가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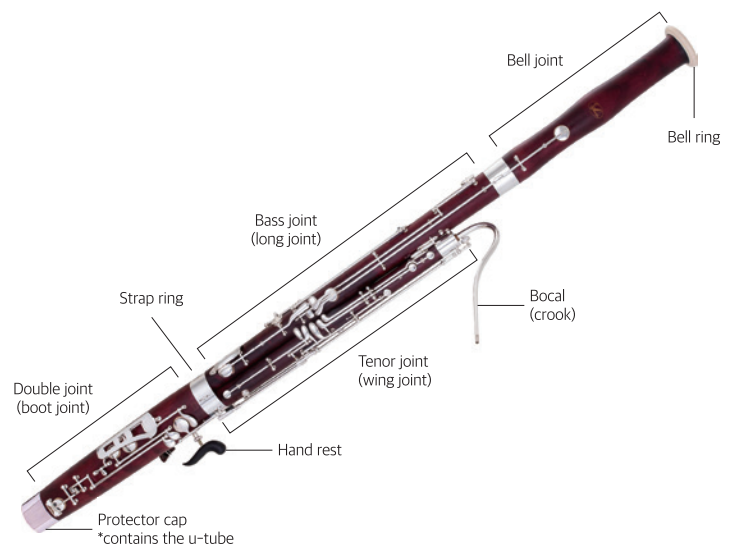
바순은 어택(음이 시작되는 부분)이 강한 음과 스타카토(한 음씩 끊어서 짧게 연주하는 방식)를 연주할 수 있다. 싱글

텅잉^{Single Tonguing}은 바순에 있어서 표준적인 연주법이며 혀를 이용하여 ‘t’ 하면서 끊는 방식으로 빠른 연주가 가능하다. 더블^{Double} 텅잉과 트리플^{Triple} 텅잉도 가능하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플러터 텅잉도 있는데 혀끝을 입천장에 대면서 ‘ttttt... 혹은 rrrrr...’ 하면서 재빨리 굴러주는 연주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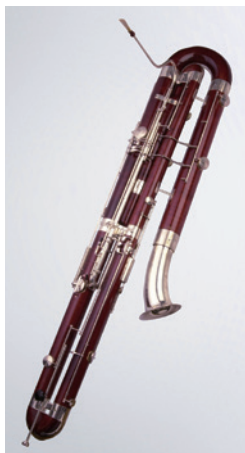
바순 솔로를 들을 수 있는 곡으로는 모차르트가 18살에 작곡한 바순협주곡과 뉴에이지 뮤지션 빌 더글라스^{Bill Douglas}의 Hymn이 유명하다.

바순의 구조

이 악기는 테너관^{Tenor joint}, 베이스관^{Bass joint}, 더블관^{Double joint}, 벨^{Bell}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고 무거워 어깨 멜빵이나 목걸이에 걸어서 사용하는데, 구조가 복잡하여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제대로 연주하기가 어려운 악기이다. 연주법은 오보에와 비슷하며 소리가 나는 원리는 일단 연주자가 리드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공기의 진동이 크록을 지나 테너관, 더블관, 베이스관을 통과하면서 맨 위쪽의 벨을 통해 소리가 나게 된다. 그리고 오픈된 키를 통해서도 함께 소리가 난다. 크록은 길고 가늘며 금속 재질의 곡선 모양으로 되어있어 연주를 편하게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연주자는 기다란 악기 몸체에 입을 갖다 대고 불어야 하는데 그 모양새가 무척 어색할 것이다.



바순의 구조 / yamaha.com



콘트라바순 / blogspot.com

바순의 종류

바순의 종류에는 콘트라바순 Contrabassoon(더블 바순 Double Bassoon)이 있으며 굵은 관이 네 부분으로 접혀 있다. 이 네 부분을 일자로 쭉 펼 수 있다면 무려 6m에 무게는 10kg이나 된다. 벨은 아랫부분을 향하고 있고 아주 깊고 낮은 소리를 내며 악기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엔드핀으로 고정한 뒤에 연주한다. 바순보다 한 옥타브 낮은음을 낸다.



케인 농장(수확 후 말리는 모습)
/ donati-reeds.com



케인을 작게 자른 모습
/ sajtop.com



다양한 리드 제작 도구 / le-roseau-oboe.com

바순에 관련한 뒷이야기

싱글리드와 더블리드 악기들

싱글리드(홀리드)를 가진 악기는 클라리넷과 색소폰이며 얇은 나무줄기(케인 cane)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악기의 마우스피스에 고정해 붙면 리드가 마우스피스에 부딪혀 진동



바순 리드와 오보에 리드
/ omahaschoolofmusicanddance.com

한다. 더블리드(겹리드)를 가진 악기는 오보에와 바순이며 얇은 나무줄기(케인)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악기에 부착하여 붙면 두 장의 조각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 바순 리드는 오보에 리드보다 더 크고 넓다.

더블리드의 중요성과 케인(갈대) 농장 모습, 리드 깎기 도구들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만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 노다 메구미를 짝사랑하는 오보에 연주자(유력 우승후보였음)가 콩쿠르를 앞두고 실수로 리드를 물에 너무 오래 담가서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 탈락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오보에와 바순의 연주자들은 연주의 성패를 결정하는 리드를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실제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케인을 직접 깎아서 자기가 사용하는 리드를 제작한다.

에보나이트 바순

에보나이트는 주로 볼링공을 만드는 소재인데 내구성이 튼튼하고 저렴해서 악기 소재로도 사용한다. 아무래도 나무로 만든 프로페셔널급 악기는 워낙 고가라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반



에보나이트 바순
/ jimlaabsmusicstore.com

면, 값싼 에보나이트 재질로 만든 바순은 입문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저가의 중국산 나무 재질보다 훨씬 음정이 안정되며 내구성이 강하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음색은 다르지만 리드를 사용하고 모양새가 비슷한 악기 백파이프

백파이프(Bagpipe)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포대자루(공기주머니)와 파이프를 결합한 악기이다. 주로 소나 양의 위 혹은 가죽을 사용하여 바람을 저장한 포대자루를 만드는데 입으로 부는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다. 연주하는 동영상을 잘 관찰해보면 입에 부는 파이프는 소

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바람을 넣는 행위를 할 뿐이다. 또 어떤 것은 입으로 부는 파이프가 없는 대신 오른팔에 풀무를 설치하여 바람을 주입한다. 소리가 나는 원리는 빵빵하게 부풀려진 포대자루의 바람이 리드가 장착되어 있는 위로 뻗은 관(Drone)들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발생한다. 발성 원리는 바람을 제공하는 공기주머니와 리드를 장착한 관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 바순이 아니라 오히려 오르간과 닮았다. 예로부터 소리가 커서 전쟁터나 야외의 축제 음악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와 비슷한 악기가 고대 여러 지역에 분포했으나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스코틀랜드이다.

오른쪽, 왼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리코더처럼 생긴 아래로 향하는 파이프(Chanter)의 지공을 막거나 열면서 연주를 하는데 포대자루는 왼쪽 옆구리에 차고 팔로 눌러서 바람을 불어낸다. 동시에 입으로 파이프에 바람을 공급하여 포대자루가 계속 빵빵할 수 있도록 유지해준다.

연주 파이프는 보통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를 위해 운지를 하는 파이프는 리코더와 구조가 비슷하며 이 파이프를 찬터^{chanter}라고 한다. 나머지 3개 중 긴 1개가 베이스를 담당하는 파이프이며 나머지 2개가 테너에 해당한다. 리드는 나무로 되어 있고 얇게 만들어져 바람이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게 된다. 리드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싱글리드와 더블리드로 구분한다. 싱글리드는 클라리넷과 비슷한 소리가 나고 더블리드는 오보에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각각 다른 4개의 파이프가 동시에 소리를 내면서 마치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 처음에는 모든 파



백파이프 / stradehome.com



풀무가 달린 백파이프 / wikipedia.org



백파이프 연주자 / historic-uk.com

이프에서 소리를 내기 힘들어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백파이프로 자주 듣는 유명한 연주곡으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스코틀랜드 민요 대니 보이^{Danny Boy}가 있다.

바순의 조상 **dulcian**과 **baroque bassoon**

dulcian은 바순이 출현하기 이전의 악기로 원추형의 길쭉한 막대 모양이 바순과 비슷하게 생겼다. 몸통에 U자 관이 있는 것도 유사하지만 바순처럼 여러 개로 분해되지 않는다.



dulcian
/ educalingo.com



baroque bassoon
/ peterdekoningh.nl



baroque contrabassoon / pinchgutopera.com.au

종류로는 알토, 테너,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등이 있으며 베이스 둘시안이 바순과 음역이 같다. 바로크 바순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나 키가 5개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바로크 콘트라바순이 있으며 고음악 부흥 운동에 힘입어 이 악기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손 받침 hand rest



핸드 레스트 / amazon.com

연주자마다 손가락 길이가 다르므로 오른손을 받쳐주면서 동시에 엄지 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지공이나 키를 운지 가능하도록 높낮이를 맞추는 기능을 한다.

패드 클리너



패드 클리너 / amazon.com

바순, 오보에, 색소폰 등 관악기는 톤 홀(Tone Hole)을 막는 키에 가죽이나 종이 등의 패드가 장착되어 있다. 연주하고 나면 이 부분에 습기를 제거해주거나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클리닝 페이퍼나 특수 소재 도구들로 관리를 한다.

바순용 멜빵

바순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앉거나 서서 연주해야 한다. 바순용 멜빵을 차게 되면 서서 연주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앉아서 연주할 수 있도록 의자에 깔고 앉아서 컵처럼 생긴 부분에 바순을 넣어서 지지하게 되는 제품도 있다.



바순 멜빵 / charlesmusic.com



바순 Seat Strap / musicarts.com

코르크 윤활제 Cork Grease



코르크 그리스
/ buddyrogers.com

관악기의 연결 부위가 코르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발라주는 것으로 악기 구성 부분을 착탈 시 부드럽게 해주며 코르크의 수명을 연장해준다. 악기라는 것이 연주하기도 어렵지만 관리 역시도 신경 쓸 일이 많은 것 같다.

봄의 제전

바순이 곡의 도입부에 선율을 연주하는 곡으로 아주 유명한 곡이 있는데 바로 '봄의 제전'이다. 스트라빈스키 Igor Stravinsky가 파리에 서 초연했을 당시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곡이다. 그 당시 그림의 화풍으로 야수파가 유행하였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스트라빈스키는 기존의 음악적 질서를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 leschroniquesculturell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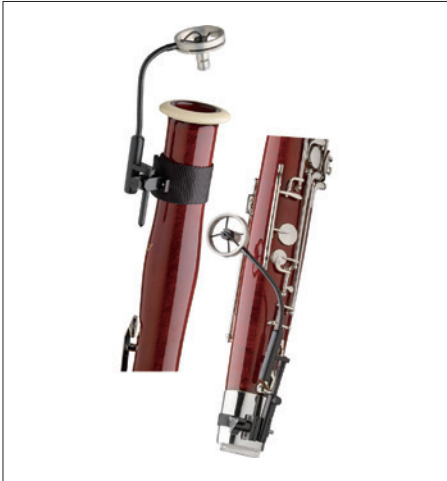
를 타파하는 풍의 '봄의 제전'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현악기가 반주를 하고 관악기가 선율을 연주하는 등 기존의 클래식 곡들과는 달랐으며 화성과 선율에서 리듬으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곡이었다. 바순이 도입부에서 오보에 영역대의 높은음으로 선율을 연주하는 모습을 본 카미유 생상스 Camille Saint-Saens는 "도대체 저것이 무슨 악기인가"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을 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음악계의 후원자인 프루탈레 백작 부인은 "육십 평생 나를 모욕하는 최초의 기회"라고 비난을 했다고 한다. 반면에 찬사를 아끼지 않은 평론가들도 있었다. 관객들이 폭소와 야유를 하며 일부는 퇴장까지 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연주를 마쳤으며, 이후에 음악계에서는 찬반에 대한 격론이 일어났다고 한다. 영화 '샤넬과 스

트라빈스키'의 시작 부분을 보면 봄의 제전 초연 당시 상황을 잘 연출하고 있다.

바순의 마이킹

바순의 근접 마이킹 방식으로는 벨의 가까운 거리에 콘텐서 마이크를 설치하여 수음하거나 혹은 벨과 부트조인트

하단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두 음을 섞기도 한다. 원거리 마이킹으로는 카디오이드(단일 지향성) 패턴의 대구경 다이어프램^{diaphragm} 콘텐서 마이크를 설치하여 수음한다. 소구경 콘텐서 마이크보다 대구경 콘텐서 마이크가 저음을 더 잘 수음한다.



바순 벨과 더블조인트 마이킹 / lonestarp percussion.com



바순의 원거리 마이킹 / 유튜브 Audio-Technica

바순의 음원들



Mozart - Bassoon Concerto
(complete) in B-flat
major K 191



Hymn - Bill Douglas



Instrument :
Contrabassoon



'Danny Boy' played
on the bagpipes



Amazing Grace Bagpipes
- The Snake Charmer ft.
Barcelona Pipe Band



Danny Boy Uilleann pipes
Chris McMullan
(풀무가 있는 백파이프)



The Italian Consort(돌시안)



Introducing the Baroque
Bassoon



Introducing the Baroque
Contrabassoon



How To : Bassoon Hand
rest or Crutch



Coco Chanel
& Igor Stravinsky



Basic Recording
Techniques : Woodwinds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목관 악기군에서 네 번째 주자 바순을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매력 넘치는 악기 색소폰이 연재된다. 🎷